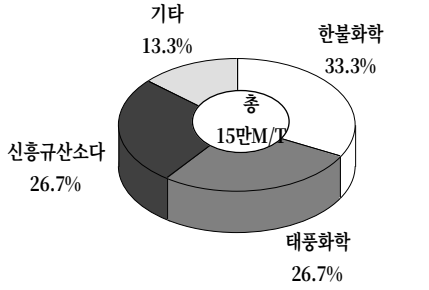
규산소다 시장침체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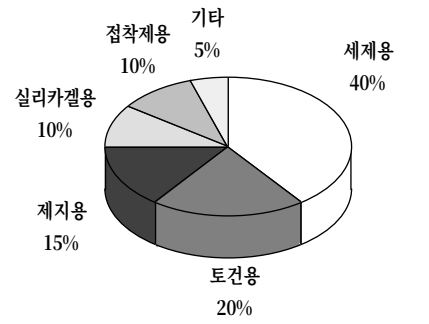
세제 · 토건용 수요정체 … 96년 수요증가율 3% 예상

국내 규산소다 시장이 수요감소와 원료가 인상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95년 국내 규산소다 시장은 전체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세제 · 토건용의 수요침체와 고부가가치 유도품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수급에는 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규산소다 생산점유율(1995)



국내 규산소다 수요구성비(1995)



관련업계에 따르면, 몇년간 계속 정체양상을 보여왔던 규산소다 시장은 95년 약 3~4%의 자연성장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95년 건설업의 불황과 세제의 고농축화로 규산소다 수요가 94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규산소다의 국내 생산량은 총 15만톤으로 한불화학, 태풍화학, 신흥규산소다 등이 전체의 86%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생산현황을 보면, 한불화학이 연간 5만톤의 Cullet(고체 규산소다)를 생산해 자가소비 및 내수판매하고 있다.
신흥규산소다는 4만톤의 액상 규산소다를 생산해 국제종합건설, 성지건설 등 토목건설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연산 4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태풍화학도 액상규산소다 전량을 토건, 세제, 제지용으로 내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모, 제오빌더, 무궁화유지, 신양화학 등은 연간 2만톤을 생산, 자가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생산량을 자가소비 및 내수판매하고 있는데, 규산소다가 내수판매에 국한되는 것은 포장비와 운송비가 과다, 경쟁력 확보가 힘들어 수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95년 하반기 주원료인 가성소다 가격이 Kg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 원료비도 생산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산소다 가격은 제3호기준 톤당 9만~1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96년1월 15%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가격은 원료인 소다회, 규사, 가성소다를 대부분 동양화학과 한불화학이 공급, 미국 롱프랑을 인수한 동양화학과 한불화학의 지분 100%를 차지한 롱프랑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산소다의 용도별 수요비중은 비누 세제용 40%, 토건용 20%, 제지용 15%, 실리카겔용 10%, 접착제용 10% 그리고 기타 화학약품용이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규산소다 시장은 96년 제지업계의 증설과 제2기, 3기 지하철공사로 수요가 일정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3/18>